



남원농협 권오정 지부장, 우박 피해 농가 방문 격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권오정 지부장은 24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산내면의 농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복구방안을 논의 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지부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시름에 젖은 농가의 이들을 함께 나누고자 긴급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권오정 지부장은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한 농업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박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성덕면, 6·25 참전 용사 감사 위로 선물 전달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2~24일 6·25 참전용사 6세대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전달했다.

성덕면은 이날 나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해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고령의 6·25 참전용사 가정에 성덕면에서 직접 준비한 생필품꾸러미를 전달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6·25 참전 용사와 그 유족들에게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학교폭력예방 등교길 캠페인 전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여성청소년과는 24일 교통초 명예경찰소년소녀단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통초 명예경찰소년소녀단원(10명)·지도교사 및 학교점검경찰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단원들은 학교폭력예방 플래카드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외치며 홍보물품(마스크)을 배부했다.

남원경찰서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교통초·월라초·용성초 학생 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내 순찰, 또래 보호·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착한가정’ 인증패 수여

진안읍 지사협, 전춘성 진안군수 15호로 가입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24일 ‘착한가정 15호’로 가입한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가정 인증패를 전달했다.

진안읍 지사협에서 연합모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금장고 만들기’ 추진을 위해 진안읍·진안읍지역 사회보장협의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3자 협약을 통해 착한가게(매월 3만원 이상), 착한가정(매월 2만원 이상) 등 지역주민을 위해 기부하는 사업장 및 가정에게 현관 및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금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08명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 4월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모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착한가정·인 1계좌 등 기부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단체·지역법인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모금된 기부금은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부동참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안군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물품기부 및 CMS 정기·일시기부 등 기부참여

를 원하는 주민들은 진안읍 맞춤형복지팀 접수처(430-8142)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복지 구현

남원시 왕정동(동장 방미자)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2021년 상반기,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단체 ‘수호천사 봉사회’와 함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에서 왕정동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9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도배·장판교체(3가구), 지붕개량(1가구), 싱크대 교체(3가구), 냉장고를 지원(1가구)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높였으며, 복지사각



지대 빌률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후 경로당 등에 배포하여 시각장애인에 놓인 취약기구를 발굴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16년 출범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정근)에서는 ‘천원의 행복 나눔의 기쁨’이라는 나눔캠페인을 전개하여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의 드론 밀반찬 지원 사업’으로 독거어르신 16가구에 월/2회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리농협, 양파수확기 일손돕기 현장지원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28일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농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파계약재배 농가를 찾아 조합원 영농 현장지원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해리농협 임직원 15명이 함께 한 이날의 행사는 관내 해리, 상하, 심원면 등 3개 지역의 양파 계약재배 농가의 포전에서 진행되었으며 수확이 완료된 양파에 대한 망작업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 고 입고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청년회의소, 아동 범죄예방 뮤지컬 ‘성료’

순창군은 JCI 순창청년회의소(회장 양재환)와 협력해 24일 순창군민회관에서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 공연 ‘이상한 하루의 솔! 탕!’을 개최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날 뮤지컬 공연은 아동범죄에 대한 안전수칙과 예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주인공인 솔이와 랑이 남매의 하루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아동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연출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오상민 김제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이 24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혁신한 시군의회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강릉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김제시에서 열린 제264차 월례회에서 오상민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오상민 의원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연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주민을 듣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주민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 지역사회에 용기를 전하는 의정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0; top: 0; 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white; opacity: 0.8; border-radius: 1